회요세평

문학도시, 광주를 그리며

탁인석
광주광역시 문인협회회장

작가들과 만날 기회가 잦다 보니 광주의 문화예술을 화두 삼는 시간이 많다. 광주문화는 무엇이며 어느 만큼의 경제성이 있고 어떻게 연결되어야 미래를 펼칠 수 있을까가 주된 관심사이다.

문학인들이어서 왕왕이 문학이 광주예술의 장자이고 제일 순위가 돼야 한다는 주장에 이르곤 한다. 최근 북구문화원에서 펼치는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과정' 특강을 준비하면서 더더욱 확실해진 결론이기도 하다. 문화관광 광주는 무엇을 보여주어야 하는가가 첫 번째 요항이다.

누차 얘기지만 저리 덩실한 무등산을 두고도 광주는 내보일 만한 관광거리가 없다는 한가한 타령이나 반복하고 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보자. 문화의전당은 광주의 중심에 위치하지만 시민과는 완전 물과 기름이다. 우리 생애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한 2조원이라는 어마한 예산의 결과가 미안한 얘기지만 시민들은 무얼 하는지조차 모르는 깜깜이 공간일 뿐이다. 거기에서 열리는 공연, 전시, 행사 교육 등의 프로그램들이 매번 그들만의 잔치가 될 뿐 소가 닭 보듯 무심상한 세월의 연속인 것이다.

더구나 건물이나 시설이 지하로 들어가 시각적으로 실패이면서 시민과의 소통은 제로상태다. 지상을 5·18의 성지로 하려면 5층은 크게 18층은 고층으로 처리해 광주의 예술 단체가 자유롭게 사용하면 어땠을까 생각한다.

문화의전당 시민과 불통

안타깝다는 생각만 벙벙히 차 오른다. 우리처럼 가깝다는 사람들도 이들 공간에만 들어서면 어떻게 빠져나가야 할까부터가 걱정거리다. 이쯤 되고 보니 문화의전당은 무인도처럼 더더욱 낯선 섬으로 가고 있다. 예술단체의 회원들부터가 문화의전당에서 북새통을 이뤄야 시민들과 함께 향유해야 할텐데 그 같은 일은 머나 먼 남의 나라 얘기다. 금년은 코로나19로 엄중한데도 의욕적으로 광주관광재단이 출발됐다. 직원만도 20여 명을 넘어간다니 여기서마저 답이 없다면 광주의 관광산업은 더 이상은 기대 난망일 것이다.

광주는 도처에 갖가지 문학자산이 넘쳐나고 있다. 비엔날레로 미술의 도시를 꿈꾸지만 그쪽보다는 문학 분야의 매력은 방관하고 있다. 광주권 화가들을 한국의 최정상이라 하기에는 망설여지는 부분이 있지만 이 분야의 예산이 많다는 것은 사실이다.

거기에 비해 조선시대를 아우르는 무등산권 문학은 그 성과가 가히 괄목상대하다. 하나의 예로 무등산을 무대로 펼쳐낸 계산풍류는 기라성 같은 문사들의 요람이었다.

솔직히 그 무렵의 성과를 제외하면 한국문학의 역사를 쓸 수 없다는 사실에서 그 설명이 새삼스럽다. 무등산 원효계곡에서 창평, 담양으로 이어지는 맑은 물줄기를 따라 꽃피웠던 시가문학은 가히 눈부시다는 표현이 타당하다.

한분한분이 국보급 자산들이며 광주가 내세울 수 있는 간판급 작가들이다. 그 시대의 성과는 담양의 '한국가사문학관'에 집약하고, 또 한국근·현대문학사의 극광이었던 '시문학파'는 우리 광주의 박용철 시인이 주도한 문학운동이건만 '한국시문학파기념관'이라는 이름으로 강진에 넘겨주고 말았다.

지면제한으로 일급 문사들의 한가지 제안하자는 바, 이쯤에서 줄이고 우리 광주가 지닌 문학적 역량제고로 마무리하기로 한다. 광주는 고려 말, 조선 초의 탁광무, 탁신 두 분에의 비상한 조명이 필요하다. 탁광무는 고려 말 외교관으로 명 태조 주원장을 만나 당당히 실리 외교를 펼쳤고 호남 최초의 정자인 경렴정을 지어 자신의 호를 삼고 정자문화의 효시를 이루었다. 그리고 '호남'이라는 용어 또한 처음 사용한 분이라는 점에서도 조명의 의미는 커진다. 그의 아들 탁신이 많은 작품을 남기고 죽었을때 세종대왕이 직접 어제御製로 추모시를 해주신 분이다.

광주의 미래는 문학예술

셰익스피어의 생가 도시 스트릿퍼드는 인구 12만인데 연 550만의 관광객이 다녀간다고 한다. 덴마크 안데르센의 인어공주는 80센티밖에 안 되는 작은 조각인데도 사진 촬영의 순번을 얻기 위해 2, 3일씩을 묵어갈 만큼 인신인해하고 헤밍웨이의 〈노인과 바다〉 또한 이와 형편이 다르지 않다. 이 같은 사례는 얼마든지 더 있다. 광주의 미래는 문학예술로 가야 한다. 무등산은 가사문학의 성지이며 볼거리가 지천이다. 그런데도 추진 중인 문학관마저 저리 부적합한 곳이니 지어진 뒤가 더 걱정스럽다. 광주는 찾아내어 가꾸기만 하면 '정말로 문학최고의 도시'인데 지금 추진중인 문학관에 최선의 콘텐츠는 무엇일까 고민중이다.

기고

코로나19에 저출산 현상 심화 우려된다

오경자
광주시 저출산극복사회연대회의 위원

신종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비상사태이다. 오랫동안 코로나가 지속되다 보니 블루 코로나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질 만큼 모두 다 힘든 한해를 보내고 있다. 다행이 한국은 K-방역으로 사회적 거리, 마스크와 손 씻기 등을 잘 지켜서 글로벌 위기상황에서 모범 답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국제적 평가를 받고 있다.

코로나 19 상황에서도 시민들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협조하면서 위기를 잘 넘기고 있다. 세계 각 국에서 코로나 백신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당분간 코로나의 위기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 19 확산에서 보듯이 이제 우리는 전염병, 기후, 환경 등의 변화로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야 한다. 살아가기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저출산 문제는 더욱 심화될 수 밖에 없다. 저출산 극복에 범국가적인 노력이 절실해진 것이다.

2021년 여성 가족부 예산은 1조 1,789억원 편성으로 전년 대비 5.3%가 증액됐다. 이는 자녀양육 및 가족 지원 확대, 경력단절 여성취업지원, 디지털 성범죄 대응체계강화, 고령화 추세에 따른 우리나라 현황을 분석하여 가족 돌봄을 넘어 공동체적 사회 돌봄 서비스에 예산을 적극 투입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분석된다.

여성 및 가족 정책은 희망찬 미래의 가족 공동체를 위해 시대적·사회적 변화에 부응하는 가족문화 조성 정책에 맥이 닿아 있다. 여성 친화정책과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혁신의 변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으로 가족 돌봄 시스템을 가동하기 위한 준비를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각 지자체는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여성·가족정책을 펼쳐야 한다.

여성 및 가족 정책은 국가의 생존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한 가족의 구성원의 원동력이 국가 경쟁의 역량이 되기 때문이다. 이제 가족 구성원은 다양한 관점으로 우리 사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소비 시장을 변화시키고 있다. 특히 밀레니언 세대의 등장과 Z세대의 직장으로 출현은 우리 사회의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사회적 변화에 발맞추어 저출산과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만들기본부가 출범했다. 이에 광주여성단체협의회에서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전문교육을 받고 손자·손녀를 돌보며 육아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손자녀돌보미 사업을 하고 있다.

또한 아빠가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아빠와 함께하는 '아빠 육아 참여교실', 여성과 남성이 함께하는 가사활동을 위해 '요리하는 청춘' 등의 사업을 통해 양성이 평등하고 온 가족이 행복한 가족 공동체가 프로그램으로 시행하고 있다. 엄마와 아빠, 남과 여를 떠나서 온 가족이 자녀에게 정성을 들이며 서로를 격려하고 배려하며 어려움을 나누는 진정한 평등가족이 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광주 시민과 함께 하고 있다.

'아이 한 명을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마을공동체가 아이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주면 저출산의 문제도 점차적으로 해결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져 본다.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세상의 흐름을 바꿔 버렸지만 자신의 역할에서 최선을 다하는 시민정신이 있다면 우리는 위기를 잘 이겨낼 것으로 본다. 특히 이처럼 어려운 시기에는 여성, 청소년, 가족에 권익에 대한 배려와 사회안전망 강화에 중점을 둔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또 이런 여성 정책들이 현장에서 잘 집행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간 긴밀한 소통과 협조가 필요하다. 정책만 만들어 낸다고 해서 여성과 아이가 살아가기 좋은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 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좋은 정책과 이를 집행하는 지자체의 의지, 그리고 사회적인 인식개선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K-방역을 통해 어려운 시기일수록 단합의 힘을 보여주는 대한민국의 모습은 세계를 감동시키고 있다. 4차산업혁명과 코로나시대를 맞아 급변하는 사회변화속에서 건강한 가족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는 노력을 이제 시작해보자.

독자광장

'마스크착용 의무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동참

코로나19 확산추세가 심상치 않아 걱정이다. 일주일 넘게 세 자리수를 기록하던 일일확진자수는 기어코 200명을 넘었다.

이에 방역당국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을 검토하는 분위기다. 겨울철 독감과 함께 대유행이 우려된다는 소식도 들린다. 마스크착용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다.

마침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지난 13일부터 본격 시행되었다. 다중이용시설 중 중점관리시설인 유흥주점과 일반음식점(식당·카페)은 물론이고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및 약국, 요양시설,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 경기장, 500인 이상 모임·행사에서도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백신 개발관련 희망적인 소식이 들리고는 있으나 현재로선 마스크착용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취할 수 있는 '최고의 백신'인 셈이다.

그러나 주변을 둘러보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노마스크, 마스크를 착용했으나 입만 가린 경우(코스크)는 예사고 턱에 걸친 이른바 턱스크족들도 많다.

특히 음식점이나 카페에서 마스크를 벗고 대화하는 사람들도 아직 많다. 식사나 음료를 마실 때 이외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하는 '마스크 착용의무화' 행정조치가 무색할 정도다.

마스크 착용 위반시 부과되는 10만원의 과태료도 아랑곳하지 않는 모양새다. 비단 돈이 문제가 아니다. 마스크착용은 '나와 이웃의 건강'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일이다.

위드 코로나시대,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 아니라 '마스크'다.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마스크착용 의무화'에 다같이 동참하기를 기대한다.

/농협중앙교육원 김학수 교수

사설

도로 무법자 전동 킥보드 규제 완화라니

전동킥보드로 인한 안전사고가 심각하다.

그동안 전동킥보드는 원동기 면허증을 소지해야 하는 소형 오토바이와 유사하게 운용됐다. 그러나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는 오는 12월10일부터는 이용 범위가 대폭 풀리게 된다. 개정 법령에 따라 중1(13세 이상)부터 면허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되면, 청소년들은 사고에 방치될 여지가 많다. 면허 없이 중학생도 탈 수 있고, 안전모 미착용에 대한 처벌 규정도 없다. 전동킥보드 사고로 사망하는 상당수가 헬멧을 쓰지 않은 사실을 외면한 것이다. 심지어 주행 금지된 인도에서 행인 사이를 아슬아슬 주행하는 위험천만한 모습 봐도 아찔하다.

이런 상황에서 내달 10일부터 절제력 없는 중학생들까지 전동킥보드를 타고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숫자는 엄청 날 것이다.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개인이동수단 사고는 2017년 3건에 불과 하다 2018년 15건, 2019년 18건으로 점차 증가 추세다.

전국적으로 보면 2016년 49건에서 2017년 181건, 지난해 258건으로 늘었다. 불과 3년 새 4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물론 전동킥보드는 저공해 미래형 이동수단으로서 주목받고 있다. 큰 전기차를 타지 않아도 전동킥보드로 어지간한 곳은 혼자 이동하기에 충분하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안전 운행이라는 전제가 갖춰진 후의 일이다.

수요 폭증에 따라 복잡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나 자전거보다도 훨씬 더 위험한 문제를 일으킬 개연성이 대단히 높다는 것이다.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생활 편의뿐만 아니라 미래 산업에 거는 기대도 허울 뿐이다.

청소년들이 전동 킥보드로 인해 불행한 비극을 일으키고 맞이하는 일이 없도록 도로교통법 재개정에 가속도를 내야 한다.

수능 수험생 코로나 대책 만전 기해야

내달 3일 치러지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앞두고 광주·전남지역 학생들의 '코로나19' 감염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누그러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다 자칫 수능에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

현재 광주와 전남지역 학교에선 코로나19 감염 학생들이 꼬리를 물고 있다. 지난 22일 양성 판정을 받은 광주 610번 확진자는 광주의 고교 1학년생이다. 앞서 20일에도 광주 남구의 한 여고생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전남에서도 학생들 감염이 이어지고 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가 발생한 학교에 대해 교내에 선별진료소를 설치, 학생과 교직원들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수능시험을 앞두고 있는 고3 수험생들도 포함돼 있음은 당연하다. 광주·전남교육청은 수능 시험일까지 수험생 방역관리 특별기간을 운영하며 방역활동에 고삐를 죄고 있지만 불안한 상황이다.

더욱 문제는 코로나19가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부는 수능이 코앞으로 다가온 점을 고려, 최근 고등학교 밀집도를 3분의 2 이하로 최대한 준수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1.5단계로 격상된 우리지역 학교는 물론 모든 학교들이 밀집도 3분의 2 이하를 준수토록 하고 있다. 수능을 앞둔 방역 당국과 교육 당국의 고심이 읽혀진다.

안타깝게도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연일 200~300명대를 오르내리는 등 '3차 대유행'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이런 와중에 수학능력시험은 10여일도 남지 않았다. 따라서 수능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방역당국은 물론, 교육 당국, 그리고 수험생과 학부모 모두 꼼꼼한 대책과 주의를 해야 마땅하다.

항공사합병, 노동자·소비자 권리 지켜져야

기자수첩

이나라
경제부 차장

양대 항공사인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의 합병을 두고 곱지 않은 시선이 많다. 그중 대한항공의 독식으로 인한 항공서비스질 저하와 직원들의 고용유지 불안은 빼놓을 수 없는 논쟁거리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1988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출범했다. 당시 올림픽 개최지인 한국의 수도 서울이 세계적으로 높은 관심을 받으면서 한국으로 오는 관광 수요가 늘어나는데 대한항공만으로는 이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여론이 형성됐기 때문이다. 이전까지 대한항공은 서비스 질이 낮다는 지적을 받았었다. 아시아나 출범으로 두 항공사는 30여년간 서로 견제하며 성장해왔다. 이제 다시 대한항공 독점체제로 운영하게 돼 서비스 질 저하의 우려가 나오는건 당연한 수순이다. 더구나 코로나 19로 관광산업이 어려워지면서 합병후 아시아나 항공 직원들의 고용도 불안한 상태다.

실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제주항공은 3,183명으로 9개월 사이에 123명(3.7%) 줄었고 아시아나항공 113명(1.2%), 대한항공 71명(0.4%), 진에어 64명(3.3%), 티웨이항공 59명(2.6%) 감소했다. 이미 한진으로부터 아시아나항공의 구조조정은 없을 것이라는 확약을 받았지만 현 상황을 지켜보면 안심할 순 없다.

아시아나와 대한항공의 상황을 지켜보면 네덜란드 사회심리학자 홉스테드의 불확실성의 회피가 떠올랐다. 이 원리는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의존도도 높아진다는 것이다. 어쩌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항공업계가 처한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지원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부의 입김이 작용했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현재 공정위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 결정이 공식화된 이후 항공업계의 매출·점유율·부채비율 등 시장 상황과 해외 기업결합 사례 등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정부에만 의존하는 소극적 행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진정한 경영진이라면 임직원들의 고용문제와 소비자들이 서비스 질 저하, 운임 인상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생활정보전화		긴급전화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기상예보	131
▲응급질병상담	1339	▲법률구조상담	132
▲미아·가출인 신고	182	▲인광 알코올 상담센터	222-5666
▲여성 긴급전화	1366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1388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수도 고장신고	121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전기고장 신고	123
▲응급의료센터	1339	▲가스사고 신고	383-0019

※외부 필자의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1989년 6월 29일 창간 **전남매일** 2005년 9월 21일 등록번호 광주가 14(일간)
회장 朴哲弘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金善男 편집국장 朴元雨
대표전화 062) 720-1000 구독 신청 및 배달안내 720-1004, 010-4601-5323

정치부 (062) 720-1060~62	편집부 (062) 720-1070	기사제보
경제부 (062) 720-1066~67	논설실 (062) 720-1032	•TEL (062) 720-1050~54
사회부 (062) 720-1050~54	전산실 (062) 720-1033	•사회부장 010-6633-8826
사회2부 (062) 720-1044	월간국 (062) 720-1006~07	•FAX (062) 720-1080~81
동부권본부 (061) 743-4200~01	관리국 (062) 720-1012	•E-mail jndn@chol.com
문화부 (062) 720-1071	판매국 (062) 720-1004	광고문의
체육부 (062) 720-1041	사업국 (062) 720-1011,1099	•TEL (062) 720-1016~17
사진부 (062) 720-1040	광고국 (062) 720-1016~17	•FAX (062) 720-102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E-mail jnmi1000@hanmail.net

우) 61639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98 (사동)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